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실현성·환경성 관건

정부 계획 반영 여부 촉각…어민 공감대 형성도 변수

전남도, 2029년까지 48조 투자 일자리 4000개 창출

전남도가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중인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10여 개에 해당하는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신안 등 서남해안 일대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반의 전력수급 체계 전반의 혁신, 서남해안 공유수면 개발 여건 충족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산업부 등은 우선 전남도의 추진 방안을 검토한 후 반영 여부를 결정하되 실현성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함께 단지 주변에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의 공감대 형성 등도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3단계로 나눠 48조5000억원을 투자해 8.2GW 해상풍력발전단지 및 풍력발전기 생산·조립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40개의 관련 기업을 유치해 4000개의 상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선 1단계로 오는 2025년까지 한전 1.5GW, 민간 기업 1.5GW 등 3GW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신안 임자도 앞바다 30km에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12월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전남개발공사, 한국전력 등이 개발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최근 해상풍력 지원 부두로 1선석을 목포 고하도 앞 해상에 설치하고 항만배후단지 26만7000㎡를 조성하는 방안을 확정하는 등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산업부의 올해 수립되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1단계(3GW)를 반영하고, 전력수급계획을 2년마다 수정하도록 돼 있는 만큼 2단계(추가 3GW), 3단계(추가 2.2GW)는 추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은 기존 원전, 화력발전소 등의 전력 생산량이 감소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는데다, 기존 어업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이후 사업 추진 전 전력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의해 사업 속도는 물론 사업 추진 여부까지도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해상풍력발전시설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덴마크 등에 의존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남도의 세밀한 전략이 요구된다. 48조5000억원의 투자비 가운데 민간 투자 규모가 46조원에 달하는 점도 부담이다.

전남도는 오는 3월까지 정부부처 협의를 마치고, 관련 계획에 이를 반영시킨 뒤 올 상반기 내에 상생형 일자리 선포식을 가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통 원전 1기가 0.9~1.6GW의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8.2GW는 어마어마한 규모"라며 "해상풍력을 포함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전남도가 제출한 계획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9차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계획 수립 시기도 결정이 안 된 만큼 반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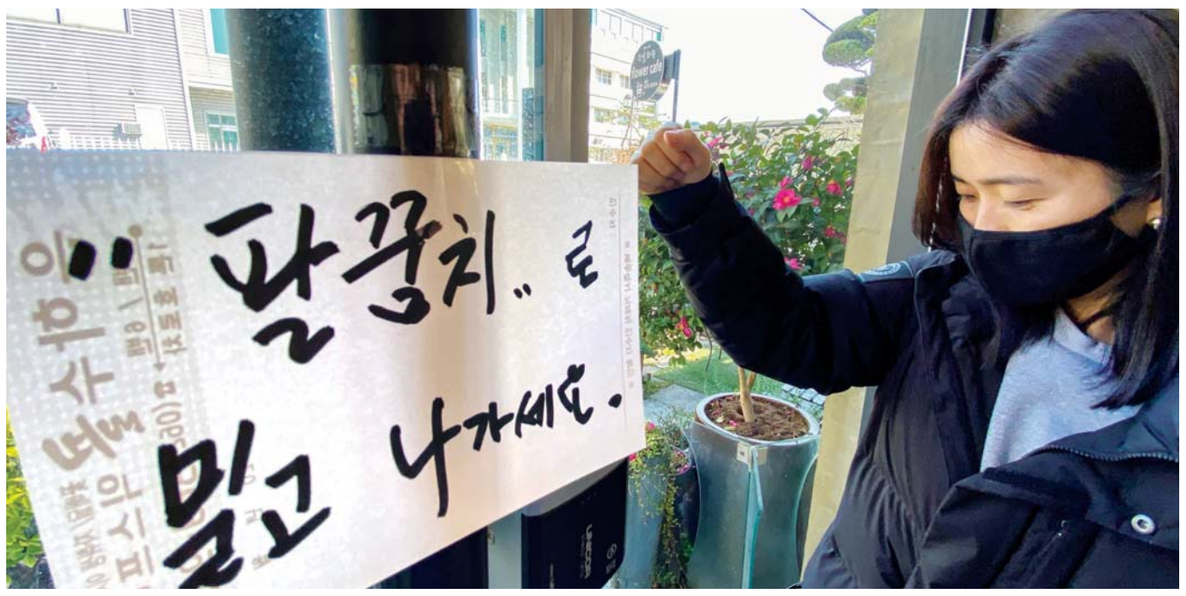
광주 감염병 관리지원단 공모 조선대 단독 신청…재공고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역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를 이끌 광주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에 나섰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치·운영 민간 위탁기관 모집에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단독으로 신청했다.

시는 9일까지 재공고에서도 단독 신청하게 되면 조선대 산학협력단에 운영을 맡길 예정이다. 위탁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년 6개월로 올해 하반기에 사업비 3억원이 지원된다. 이후 위탁 비용은 회계연도별로 확정되는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지자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 역학조사, 결과보고서, 자문 등 역할을 하게 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팔꿈치로 밀고 나가세요 코로나19 확산이 시민들의 생활방식에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8일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한 커피숍 출입문에 '손잡이 대신에 팔꿈치를 이용해 출입을 해달라'는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가축전염병 방지 방역 나서

시, 소·돼지 380만마리 예방접종 도, 순천만 철새도래지 AI 방역

전남도는 순천만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에서 최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면서 긴급 방역에 나섰다.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소 결핵브루셀라병에 대한 일제검사에도 착수했다. 광주시도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작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순천만 철새도래지에서 H7형 AI 항원이 나와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해당지역 내 사육중인 가금에 대해서는 예찰 및 이동제한·소독이 이뤄지며,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매일 소독 실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함께 전남동물위생시험소는 인수공동전염병이자 제2종 가축전염병인 소 브루셀라병의 예방을 위해 결핵병은 1세 이상 젖소 전 두수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유사산을 일으키는 브루셀라병은 집유장에 납유된 원유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농장단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도 내 젖소 브루셀라병은 2012년 이후로 발생이 없으나, 젖소 결핵병은 산발적으로 발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광주시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 돼지, 닭 등 380만여 마리에 대한 예방 접종에 나선다. 시는 사람에게도 감염을 일으키는 일본뇌염을 비롯한 아까바네병 등 모기를 매개로 하는 질병 관련 예방접종은 모기 출현 전인 5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자치구별로 가축방역관과 공수의사들이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예방약품을 공급토록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예찰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총선 라운지

"소상공인 고통 분담 전통시장 장보기 동참을"

조오섭 북구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8일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지역위원회가 실시한 말바우시장 방역봉사, 장보기 캠페인에 참가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말바우시장 등 전통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방역과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장을 찾을 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방역과 예방 대책도 중요하지만 매출저하로 고통받고 있는 시장상인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시장 장보기, 식당 이용하기 등에 광주시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시민 의견 수렴 위해 '핵심 슬로건' 공개

박지원 목포 국회의원

민생당 박지원 국회의원(목포)은 8일 "목포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핵심 슬로건과 홍보 관련 초안을 페이스 북에 공개했다"며 "향후 시민여러분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후보 등록 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슬로건 초안은 '예산 프로, 일자리 선수, 프로선수 박지원'이다.

이는 지난 12년 동안 매주 금귀월래를 실천하며 목포 호남발전을 위해 활동해 온 국비 예산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조하고 차별화한 것이다.

또 박 의원은 지역적 특성과 생활 패턴에 따라 목포를 7대 권역으로 특화해 맞춤형 개발하는 소위 '목포 발전, 337 프로젝트' 실행 계획도 공개했다.

/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민생법안 26건 통과…농어촌 삶 향상 기여"

황주홍 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

민생당 황주홍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6건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농어민의 소득 향상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임업인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임업인의 위상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69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 중 212건이 본회의에 통과되는 등 법률안 대표 발의 건수 및 통과 건수에서 각각 1위를 기록, 명실상부한 '입법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역 의석 확대는 광주·전남 발전 영향"

최회용 민주당 비례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최회용 비례대표 예비후보는 8일 "21대 국회에서 지역을 대변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 확대는 향후 광주·전남 지역의 대표성 강화와 지역발전에 결정적 관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오는 10, 11일 이틀간 권리당원과 국민경선선거인단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25명으로 후보 압축 후 12, 13일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에 의해 순번이 결정된다"면서 "비례대표 경선 결과에 따라서는 21대 국회에 광주·전남지역에서 지역구 18석에 더하여 비례대표 의석 2~5석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